

이민정책연구원 논문공모전 시상식 개최...고려대 보건학과 손혜원·박한솔·장하윤 대상 수상

✎ 이세용 | ⓒ 승인 2022.10.27 15:27

이민정책연구원은 27일 신진연구자의 이민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연구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제2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25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으며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선정됐다.



제2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시상식. 사진=이민정책연구원

대상을 수상한 손혜원·박한솔·장하윤(고려대 보건학과) 조는 'Adolescent's Bullying Victimization and Immigrant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in Korea'란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문화 청소년 집단 괴롭힘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있어 그들의 어머니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최우수상은 서성민·윤성찬·강민희(단국대 심리학) 조가 수상했다. 이들은 '미묘한 차별과 울분의 관계에서 강화된 경계심과 한국문화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란 주제로 이주배경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경험차별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상담적 개입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상은 2개 팀이 선정됐으며 임정택(고려대 사회학) 학생과 송가람(단국대 심리학)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임정택 학생은 '在 베트남 한-베 가정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질적연구'란 주제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한-베 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거주국인 베트남의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과 민족정체성 형성에 대한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송가람 학생은 '중국 출신 중도입국 청년들의 진로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는 중국 출신 중도 입국 청년들의 입국 전·후 진로 경험을 탐색해 현재 진로 선택과 적응에 대한 영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동관 원장은 “이번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은 이민분야 저변 확대 및 신진연구자 발굴의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민정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용기자



이세용 bigego49@joongboo.com